

# 민주당 전당대회, 정책 대신 네거티브... 지도부 '경고장'

“과도한 비방, 당 차원 강력한 조치”  
김민석·정청래, 서로 날 선 공방  
선호투표 유지, 순회경선 계획대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유력 주자들간 공방으로 조기과열되는 모습이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네거티브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날(6일)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 직전 1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맹폭하자 친청(친정청래)계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며 김 전 총리를 공격했다.

이에 김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선언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왼쪽)와 출마가 유력한 정청래 전 당 대표. /뉴시스

득구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김 전 총리의 그날 밤 행적을 캐물었다”며 “같은 당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순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장

동 때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곤욕을 치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이 같은 당인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공격받았던 때를 떠올린 것으로 풀

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까지 자신을 겨냥한 김 전 총리의 비판을 듣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7일 SNS를 통해 자기 정치의 폐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당직 인사 탕평책 ▲언론 인터뷰 자제 ▲공정한 공천 ▲1인1표제 도입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자기 정치 폐해를 반박하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측 고위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 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당대표 로망’ 발언은 김 전 총리가 올해 2월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면서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고 한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대표 선거 유력 주자 중 1명인 송영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당 대표 유력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전당대회 후보등록 전부터 조기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학영 전 준비위원장이 나섰다.

이 전준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회의를 주재하고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합과 비전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당내 구성원 간 소모적인 비방이나 네거티브가 아닌 미래와 비전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의 구성원들은 전당대회 기간 중 엄정한 중립 의무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당선자를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에서 실시돼 일각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일정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전당대회 조기 과열 양상을 고려해 순회경선 일정은 3주간 각 주 일요일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 ‘공포정치’ vs ‘기강 확립’... 국민의힘 내홍

친한계·소장파·당 지도부 간 갈등  
장동혁 “복당 영구 금지까지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당원들로부터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국면에 돌입하자 7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 윤리위는 전날(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전후로 당원 등으로부터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구안을 검토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친한계 의원들과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나섰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

과 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장 대표의 공포·징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선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선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는 안 하고,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징계는 지난달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부산에 내려가 한 의원과) 치킨 먹은 사람을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건 징계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인 조정태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뜻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뒷인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뒷 박덕흠 부의장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상태다.

친한계와 소장파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권파도 이에 질세라 반박에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안과 미래’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마저 정치 보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공당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징계를 두고 정적 제거니 뻔셈 정치니 하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안과 미래도 없이 당을 흔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그 이름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반납하기 바란다”며 “당원들이 자긱지긱 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열 정치”라고 보았다.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징계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 대표가 당내 ‘해당 행위자’의 복당 영구 금지를 언급하며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당원·당규를 개정 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수 수습기자 gws0325@

## 李, 나토·몽골 순방 방산·공급망 협력

나토 정상회의서 韓 기업 홍보  
몽골 15년 만에 국민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몽골을 국민 방문하는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국가) 대표들과 함께 소인수회담에 참여하러 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도착 저녁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서 양국의 우호를 다진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8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으로, 최근 유럽 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등으로 나토 회원국 등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인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15년 만에 몽골을 국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한·몽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 ETF 쏠림에 칼 뺀 민주당... 제도 개선 착수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개별 주식 1종목의 단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고수익 파생형 상장지수펀드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면서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

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산적 투자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할 자본시장의 자금이 일부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코스닥시장의

지금조달 가능성은 약화되고 시장 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가분수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